

## 한빛원전 5호기 총체적 부실공사

이용빈 의원 국감 자료

저가·내구성 낮은 용접봉 사용  
스테인리스 재질 부실 용접  
한수원·원안위 등 관리도 엉망

한빛원전 5호기에 규격 제품보다 5배가량 저렴하고 내구성도 떨어지는 용접봉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주고 있다. 특히 잘못 사용된 용접 용품은 일반인도 쉽게 재질의 차이를 구분할 정도로 규격 제품과 차이가 두드러지는데도 규제기관과 전문기관, 사업자 모두 이를 잡아내지 못해 부실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접합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용접봉이 저가 제품으로 밝혀졌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한빛원전 5호기에 부적격 용접봉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여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3면〉

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건설작업은 총체적인 부실공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부실 용접 문제는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보수·용접하는 과정에서 규격에 맞는 알로이(Alloy 690)재질이 아닌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국내산 알로이(15kg·105만원·120만원)보다 스테인리스(15kg·20만5000원)는 훨씬 저렴하다는 점에서 불법 하도급을 통해 저질 제품이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보통 원자로 '헤드'와 '관통관'이 만나는 접합 부위는 스테인리스 용접봉으로 3바퀴 돌려 용접한

뒤 내구성 강화를 위해 알로이690 재질로 16~21바퀴 용접하는 작업을 3~4번 반복해 겹겹이 층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하청업체 직원 2명은 한빛원전 5호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스테인리스로 잘못 용접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잘못 용접된 부위에 알로이 690을 덧씌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부실 용접 관련 재작업을 승인했던 7월부터 재검사를 시작한 10월까지 근 3개월여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또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둘 다 사업자(한수원)와 시공사의 자체 보고만 믿고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5월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 용접 문제가 터지면서 한수원·두산중공업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에는 규제기관(원안위)과 규제전문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이한 관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자와 시공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원안위와 KINS에도 관리 책임이 지적되고 있다. 사전 점검 단계에서 사업자와 시공업체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는 점검 방식과, 부실용접이 불거진 이후 관련 시공사에 자체 점검을 맡긴 안이함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용빈 의원은 “한빛5호기 부실용접 사태에는 사업자와 시공업체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규제기관과 전문기관의 관리 책임 역시 심각한 문제다”면서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 녹화 내용과 공인기관의 검사 내용 등 품질 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코스피, 3일 연속 급락 올해 최저점 마감

코스피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6일 다시 크게 하락하며 2900선까지 위협받게 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53.86포인트(1.82%) 급락한 2908.31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올해 최저였던 1월 4일(2944.45)보다 낮은 새 연중 최저점이다.

코스닥 지수의 하락 폭은 코스피보다 더 컸다. 코스닥 지수는 3.46% 급락한 922.36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지난 1일과 5일 각각 2.00%와 2.83% 하락한 데 이어 이날은 하락 폭이 더 컸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월 26일(913.94) 이후 최저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미국 채권금리 상승 및 달러 강세에



따른 한국 채권금리 상승 등 채권과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지수 하락과 낙폭 확대에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3.6원 오른 달러당 1192.3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190원대에서 마감한 것은 작년 8월 4일(종가 1194.1원)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고분군에 내려앉은 핑크빛 가을

전형적인 가을날씨를 보인 6일 오전 나주 반남고분군 주변으로 분홍빛 핑크몰리가 활짝 피어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명 “압도적 승리”… 낙 “끝까지 최선”

민주 대선 경선 피날레 장식

경기·서울 경선, 3차 슈퍼위크  
“경선 뒤 원팀으로 정권 재창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피날레를 장식할 경기·서울지역 경선과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압도적 과반 승리로 본선 직행을 이루고 당내 결집을 통해 진보 진영 주자로서의 강력한 경쟁력을 과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결선투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갈수록 커지면서 3차 슈퍼위크에서의 투표율과 득표율 등이 전체 대선 구도에 미묘한 파장을 미치지 않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일 경기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에 이어 6일 3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와 서울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면서 3차 슈퍼위크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경기·서울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3차 국민 선거인단은 총 62만 명에 달한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경기지역 경선 결과를 받

표하고 10일 서울 경선 결과와 함께 3차 선거인단 결과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본선 직행을 확정적으로 보고 인천에 이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압도적 과반 득표를 통해 대선 승리의 토대를 닦는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특혜 개발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득표권 보수·토권 세력에 맞설 주자로 이 지사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사실상 결선투표가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에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캠프 일각에서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불뚝이 어 디로 튀느냐에 따라 3차 슈퍼위크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대장동 특혜 개발에 대한 수사 결론이 어느 정도 날 때까지는 당 선대위 출범을 미루는 방안

등 경선 이후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선 3차 슈퍼위크에서 이 지사가 과반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으면서도 투표율과 득표율을 주목하고 있다. 3차 슈퍼위크 결과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연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지사가 3차 슈퍼위크에서 평균 득표율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투표율이 낮을 경우, 대장동 특혜 개발 논란의 여파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결집을 저해하고 여론 주자로서의 경쟁력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이 끝나면 민주당은 원팀으로 정권재창출에 나서야 한다”며 “이제 모든 후보들과 당원들은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을 떨치고 시대적 과제를 정권재창출을 위한 결집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경찰, 수사권 가져왔는데 불신은 커졌다 ▶6면

사회인야구 ‘가을잔치’ 무등기 23일 개막 ▶18면

신 팔도명물 - 자연이 준 보약 ‘화순 작약’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배우 손담비가 선택한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 메타그린 골드

메타그린 골드 원포인트

- ☑ 고지방·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
- ☑ 항산화와 뼈 건강까지 관리해 부족하기 쉬운 대사 영양 케어
- ☑ 오실록 농장의 유기농 녹차가 함유된 프리미엄 녹차 정제

제품 상담 | 080-023-5454  
구매 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식사 후엔  
메타그린 골드를  
꼭 챙겨요”

바이탈뷰티

